

데스크 시각

임동욱
서울취재부장

춘래 불사춘(春來不似春)

예우,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역대 최고의 인사 참사라는 평이다.

여기에 초대 내각에 호남 인맥이 사실상 배제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대통령', '국민대통령'의 공약도 실종된 상황이다. 혹시나 했던 지역민들은 "대선 유세 때는 호남의 눈물을 닦아준다더니 집권하니 오히려 뺄을 친 격"이라는 반발과 함께 "이명박 정부 5년도 견뎠는데..."라는 한숨 어린 푸념도 나오고 있다.

불통의 봄에 민심만 명들어

지역 정관계에서는 영남·보수정부 10년에 중앙 부처의 호남 인맥이 고사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인사 참사의 원인은 시대와 민심과의 불통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가 가져온 '불통의 봄'에 국민의 마음만 명들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무려 52일동안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을 타결시키지 못했던 여야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는 '황사 속의 봄'을 연상시킨다. 그동안 청와대 눈치만 살피는 등 집권 여당으로서 존재감을 찾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새누리당은 지난 8일 과감한

(?) 결정을 내렸다.

'공천현금 파문'으로 제명했던 현기환 전 의원을 재입당시키고, 친박연대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특별당비를 받아 실형을 선고 받은 서정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한 것이다.

이는 정치 쇄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면으로 반하는 조치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전라도 놈들' 등 막말을 쏟아냈던 이효선 전 광명시장의 재입당 승인은 새누리당의 호남에 대한 손톱만큼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보여준 민주당의 정치적 무기력도 지탄의 대상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비대위를 출범시키며

"60년 정통 앙탕이라는 역사만 빼고 다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민심의 회초리를 맞겼다면 전국을 돌며 '회초리 투어'에도 나섰다.

하지만 민심은 시큰둥하다. 통렬한 반성과 함께 책임지는 모습도, 관용과 환합의 의지도, 개혁과 혁신의 동력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패권을 둘러싼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더욱 커지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4·24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끌어온다'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법은 그리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불통의 벽을 허물고,

민심과 소통한다면 민심을 기자기 켜게 하는 힘의 봄은 멀지 않았다. 위기의 남북 관계를 푸는 협회에도 상호 간의 소통은 큰 뒷을 차지할 것이다.

매서운 냉꽃 추위는 봄을 더욱 봄답게 만든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와 시련을 극복, 따뜻한 봄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tum@kwangju.co.kr

4월, 봄 기운이 완연하다. 하지만, 정국은 말 그대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봄이 왔어도 진정 봄을 느낄 수 없는 현실에 국민의 속만 타들어 가는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인사 '참사'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들고 있다. 장·차관급 인사만 7명이 잊달아 낙마했으며, 정부 내 비서관까지 포함하면 10명을 출찍 넘어선다. 자질 논란에 휩싸인 민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불은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5년 동안 9명, 노무현 정부 때는 '코드 인사' 논란으로 사퇴한 2명을 포함해 5명이 낙마했다.

특히, 청문회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 대부분은 위장 전업, 세금 탈루, 전관

社說

대림 여수공장 폭발사고, 결국 인재였다니

〈人災〉

지난달 14일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1000 건 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업체에 지원해야 할 안전관리 비용을 주지 않는가 하면 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에 관해 그야말로 방치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여수공장에 대한 감독을 벌인 결과, 시설보수 등 132건의 공사에서 하청업체에 안전보건관리비 7억7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무자격자에게 안전관리업무까지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해 운영해야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는 구성조차 하지 않았고, 원·하청업체 합동 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화학공장설비 용접 작업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물론이고,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비상조치요령 등을 알려주는 안전교육도 아예 뒷전이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산업안전

위반 건수만도 무려 8002건에 이른다니 예견된 인재(人災)나 다를 바 없다.

문제는 대림산업 1개 공장에서 안전위반사례가 이 정도라면 여수산단 내 60여 개 석유화학업체의 안전실태도 어려한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업체가 모든 종류의 위험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마당에, 안전의식마저 엄망이어서 화재 위험을 알고 사는 셈이다.

고용부는 대림산업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솔방망이 처벌로는 안 된다. 회사들의 안전의식 결여와 무대책을 바로 세우는 길은 사업주에 대한 구속 원칙 등 강력한 형벌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차제에 여수산단 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도 실시해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해온 국가 차원의 종합재난방재센터를 서둘러 건립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후진국형 합사는 안 된다.

심각한 수준에 이른 청소년 게임도박 중독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11.9%가 게임도박 중독 고위험군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3.8%가 전문기관의 상담이 필요한 문제성 도박 성향으로 성인들의 수치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한참 미래를 꿈꿔 할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성적·집중력 저하 등 학업문제(14.6%)와 불안·우울 등 정신적 문제(13.5%), 가정불화(11.4%) 등 어려움까지 겹고 있다니 오늘은 청소년의 일그러진 단면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중·고생 3.8%가 전문기관의 상담이 필요한 문제성 도박 상세였으며, 8.1%

는 게임도박에 중독될 가능성이 큰 '위험 도박집단'으로 파악됐다.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은 '문제성 도박'과 '위험 도박집단'을 합한 수치인 11.9%에 달해 게임도박 예방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조사 대상인 2000명의 중·고생 중 무려 73%가 최소 한번 이상의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게다가 도박 게임에 참여한 청소년의 36.2%가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한참 미래를 꿈꿔 할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성적·집중력 저하 등 학업문제(14.6%)와 불안·우울 등 정신적 문제(13.5%), 가정불화(11.4%) 등 어려움까지 겹고 있다니 오늘은 청소년의 일그러진 단면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광주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가 9일 전국 최초로 발표한 '청소년 게임도박문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도박 중독 고위험군으로 밝혀졌다.

중·고생 3.8%가 전문기관의 상담이 필요

한으로 조사 결과를 기록으로 강력한 방지시스템을 구축해 청소년들의

게임도박 중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한 소극적인 인터넷 도박 중독 치료를 다양하고 복합적인 치료법을 적용해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센터를 통한 상담치료 프로그램과 가정방문 상담 등 세분화된 유형별 치유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사후방문방문보다 강력한 사전 차단 장치가 급선무다.

無等鼓

이집트의 역사학자로서 의적(義賊)에 대한 연구로 이를 높은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에 따르면 의적이 되려면 아홉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불의의 희생양이 되어 무법자의 길로 들어서야 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 ▲부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고 ▲방어나 정당한 복수를 위해서만 사람을 죽여야 한다. ▲만일 살아남는다면 명예로운 시민으로서 고향에 돌아가야 하며 ▲민족의 존경과 지원을 받어야 한다. ▲죽는다면 배반 때문에 죽어야 하며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불사신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의의 원천인 왕

이나 황제의 적이 아니라 지방의 지주·사제·억압자들의 적이어야 한다. 중세 영국의 셔우드(Sherwood) 숲 속에서 60여 명의 동료와 함께 산적 짓을 했던 의적신화의 원형, 로빈후드의 일생과 꼭 들어맞는다.

의적에 대한 민담과 설화는 전세계에

퍼져 있다. 수호자에 나오는 양산박 108

이 가운데 '곤궁한 자를 도왔으며, 금보기'를 높은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에 따르면 의적이 되려면 아홉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불의의 희생양이 되어 무법자의 길로 들어서야 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 ▲부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고 ▲방어나 정당한 복수를 위해서만 사람을 죽여야 한다. ▲만일 살아남는다면 명예로운 시민으로서 고향에 돌아가야 하며 ▲민족의 존경과 지원을 받어야 한다. ▲죽는다면 배반 때문에 죽어야 하며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불사신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의의 원천인 왕

이나 황제의 적이 아니라 지방의 지주·사제·억압자들의 적이어야 한다. 중세 영국의 셔우드(Sherwood) 숲 속에서 60여 명의 동료와 함께 산적 짓을 했던 의적신화의 원형, 로빈후드의 일생과 꼭 들어맞는다.

의적에 대한 민담과 설화는 전세계에

퍼져 있다. 수호자에 나오는 양산박 108

이집트의 역사학자로서 의적(義賊)에 대한 연구로 이를 높은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에 따르면 의적이 되려면 아홉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불의의 희생양이 되어 무법자의 길로 들어서야 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 ▲부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고 ▲방어나 정당한 복수를 위해서만 사람을 죽여야 한다. ▲만일 살아남는다면 명예로운 시민으로서 고향에 돌아가야 하며 ▲민족의 존경과 지원을 받어야 한다. ▲죽는다면 배반 때문에 죽어야 하며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불사신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의의 원천인 왕

이나 황제의 적이 아니라 지방의 지주·사제·억압자들의 적이어야 한다. 중세 영국의 셔우드(Sherwood) 숲 속에서 60여 명의 동료와 함께 산적 짓을 했던 의적신화의 원형, 로빈후드의 일생과 꼭 들어맞는다.

의적에 대한 민담과 설화는 전세계에

퍼져 있다. 수호자에 나오는 양산박 108

이집트의 역사학자로서 의적(義賊)에 대한 연구로 이를 높은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에 따르면 의적이 되려면 아홉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불의의 희생양이 되어 무법자의 길로 들어서야 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 ▲부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고 ▲방어나 정당한 복수를 위해서만 사람을 죽여야 한다. ▲만일 살아남는다면 명예로운 시민으로서 고향에 돌아가야 하며 ▲민족의 존경과 지원을 받어야 한다. ▲죽는다면 배반 때문에 죽어야 하며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불사신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의의 원천인 왕

이나 황제의 적이 아니라 지방의 지주·사제·억압자들의 적이어야 한다. 중세 영국의 셔우드(Sherwood) 숲 속에서 60여 명의 동료와 함께 산적 짓을 했던 의적신화의 원형, 로빈후드의 일생과 꼭 들어맞는다.

의적에 대한 민담과 설화는 전세계에

퍼져 있다. 수호자에 나오는 양산박 108

이집트의 역사학자로서 의적(義賊)에 대한 연구로 이를 높은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에 따르면 의적이 되려면 아홉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불의의 희생양이 되어 무법자의 길로 들어서야 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 ▲부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고 ▲방어나 정당한 복수를 위해서만 사람을 죽여야 한다. ▲만일 살아남는다면 명예로운 시민으로서 고향에 돌아가야 하며 ▲민족의 존경과 지원을 받어야 한다. ▲죽는다면 배반 때문에 죽어야 하며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불사신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의의 원천인 왕

이나 황제의 적이 아니라 지방의 지주·사제·억압자들의 적이어야 한다. 중세 영국의 셔우드(Sherwood) 숲 속에서 60여 명의 동료와 함께 산적 짓을 했던 의적신화의 원형, 로빈후드의 일생과 꼭 들어맞는다.

의적에 대한 민담과 설화는 전세계에

퍼져 있다. 수호자에 나오는 양산박 108

이집트의 역사학자로서 의적(義賊)에 대한 연구로 이를 높은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에 따르면 의적이 되려면 아홉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불의의 희생양이 되어 무법자의 길로 들어서야 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 ▲부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고 ▲방어나 정당한 복수를 위해서만 사람을 죽여야 한다. ▲만일 살아남는다면 명예로운 시민으로서 고향에 돌아가야 하며 ▲민족의 존경과 지원을 받어야 한다. ▲죽는다면 배반 때문에 죽어야 하며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불사신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의의 원천인 왕

이나 황제의 적이 아니라 지방의 지주·사제·억압자들의 적이어야 한다. 중세 영국의 셔우드(Sherwood) 숲 속에서 60여 명의 동료와 함께 산적 짓을 했던 의적신화의 원형, 로빈후드의 일생과 꼭 들어맞는다.

의적에 대한 민담과 설화는 전세계에

퍼져 있다. 수호자에 나오는 양산박 108

이집트의 역사학자로서 의적(義賊)에 대한 연구로 이를 높은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에 따르면 의적이 되려면 아홉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불의의 희생양이 되어 무법자의 길로 들어서야 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 ▲부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고 ▲방어나 정당한 복수를 위해서만 사람을 죽여야 한다. ▲만일 살아남는다면 명예로운 시민으로서 고향에 돌아가야 하며 ▲민족의 존경과 지원을 받어야 한다. ▲죽는다면 배반 때문에 죽어야 하며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불사신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의의 원천인 왕